

전남농업 버팀목...청년 창업농 268명 선발

466명 지원 경쟁률 1.7대1
3년간 월 100만원 정착금
2ha 한도 농지 우선 임대
3억원까지 저리 융자 혜택

전남도는 전남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창업농 268명을 선발, 영농정착 지원금과 농지, 후계농 자금 등을 본격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 창업농은 독립경영 3년 이하인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인 자이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원자는 총 466명으로 1.7: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올해 '코로나19'로 도 단위 면접이 불가능해 사·군별 평가를 실시, 대상자를 최종 선발했다. 선발자는 남자 218명(81.3%), 여자 50명(18.7%)이며, 연령별로는 20대 100명(37.3%), 30대 168명(62.7%)이다. 영농경력별로는 예정자 157명(58.6%), 1년차 93명(34.7%), 2년차 14명(5.2%), 3년차 4명(1.5%)이다. 청년 창업농에게는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1년차 월 100만원, 2년차 월 90만원, 3년차 월 8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

금을 지급하게 된다. 지원금은 바우처 방식의 청년농업 희망 카드로 지급되며, 경영비나 일반 가계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청년농업인에게는 교육 이수를 비롯 전업적 영농유지, 경영장부 작성, 재해보험과 자조금 가입 등의 의무사항이 부여된다. 또 농어촌공사를 통해 2ha 한도에서 우선적으로 농지를 임대받을 수 있고, 연리 2%의 후계농 자금을 5년 거치 10년 상환을 조건으로 3억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다. 전남도는 청년농업인 역량 강화, 네트

워크 형성 등을 위한 사업 확대를 비롯 지원금 취지에 맞는 자금 사용 여부 및 의무 이행 사항 점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하용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청년 농업인이 영농 초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며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농업 분야 진출을 위해 후계 농업인 인력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난 2018년 239명, 지난해 258명을 선발해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녹차 김치·표고버섯 된장·흑양파 음료 전남도 특허기술 이전 식품산업 활성화

전남도 식품산업연구센터는 면역력 증대에 효능이 있는 특허기술을 식품업체에 기술 이전하는 등 전남도내 특산물을 원재료로 한 식품산업 활성화에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연구센터는 최근 보성 소재 북내마을 영농조합법인과 전남 특산물인 녹차의 유용한 성분을 활용한 중군 김치 제조방법 특허기술을 이전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제품화에 돌입했다. 이번 협약한 특허기술은 김치에서 분리한 특허 유산균을 이용, 녹차의 주성분인 카테킨의 효능은 유지시키고 쓴맛은 낮추면서, 항산화 활성 등 기능성이 증진된 김치를 만들어준다. 특허항암효과 등 면역력 강화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센터의 설명이다. 다음달에는 장흥 표고 버섯과 강진의 귀리를 활용한 중군된장제조 특허기술도 식품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전할 계획이다. 이밖에 무안 흑양파를 활용한 제품개발을 위해 (주)비씨에이치푸드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할 방침이다. 양파를 활용



해 발효·추출공정을 표준화하고, 면역 활성화와 장 건강 가능성을 가진 음료·환제 품 개발을 목표로 연구사업을 추진한다. 무안에서 생산된 양파는 전국 생산량의 36%를 차지하지만 과잉 생산으로 인한 가격하락이 심한 품목이다. 향후 연구사업을 통해 제품 개발이 성공리에 추진되면 양파 재고량 감소 등 수급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종철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이번 녹차중군김치 제조 특허기술이전 이 녹차를 이용한 김치산업 발전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며 "발효 흑양파 제품이 개발되면 양파를 활용한 식품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귀농·귀어·귀촌 체험

일반형·특화형 참가자 모집

전남도가 전남 농어촌에 일정 기간 체류하며 귀농·귀어·귀촌을 체험할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사업 참가자에 대한 모집에 나섰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는 도농 간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도시민이 농어촌으로 이주하며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전남이 전국에서 처음 도입해 큰 호응을 얻은 사업이다. 사업에 참여하면 최소 5일에서 최대 60일간 농촌에서 살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직접 농산어촌의 삶을 체험할 수 있다. 주민 교류와 어울림 행사, 문화 관광지 탐방, 전문가 만남, 마을 일손 돕기 등이 진행된다.

특히 올해 농산어촌 체험과 귀농산어촌 기초 정보 습득 등 일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일반형'과 취·정착을 위해 가공기술 등 농촌융복합산업, 기타 전문기술 전수를 목적으로 하는 '특화형' 등 2가지 유형으로 모집된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안전기준에 부합한 장기민박 시설을 갖추고 귀농·어촌 교육을 비롯 현장 체험, 주민 교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일반형 22개 마을과 특화형 4개 마을 등 총 26개 마을에 대한 선정을 마쳤다. 참여는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 누리집(live.jeonnam.go.kr)을 통해 숙박할 객실과 기간을 정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은 마을 운영자가 체류기간과 팀 구성 여부, 청년(만18~39세), 신청순서 등 우선 순위를 고려해 참가자를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숙박, 농어촌체험 교육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식비와 교통비 등 생활비는 자부담하러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가 최근 5월 추천 관광지로 광양과 장흥의 자연휴양림을 선정했다. 사진은 장흥 우드랜드.

전남도 '5월 추천관광지' 선정... '숲캉스' 대세

광양·장흥 자연휴양림 일대

가족 관광객 힐링코스 명소

전남도는 가족과 함께 자연 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광양과 장흥의 자연휴양림 일대를 '5월 추천관광지'로 선정했다. 광양시는 광양만이나 제철소의 야경도 아름답지만 백운산을 뚫을 수 없다. 백운산은 광양시의 전체 면적 중 5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백운산 자락에 위치한 옥룡계곡은 백운산 4대 계곡 중 가장 크고 깊어 여름철 피서지로도 안성맞춤이다. 인근 동백꽃 피서지는 '인생샷'을 남기려는 젊은 관광객들에게 인기몰이 중이며, 매년 12월부터

4월까지 붉게 핀 모습이 아름다운 봄꽃 명소이기도 하다.

또 동백숲에 둘러싸인 빈 절터인 옥룡사지도 있다. 천년고승 도선국사가 창건한 절 옥룡사가 있던 자리이다. 이 터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역사적 가치 보존을 위해 사적 제407호로 지정됐다. 백운산 자연휴양림으로 향하면 진정한 '숲캉스'가 시작된다. 산림교육, 치유의 숲 프로그램, 목재 문화 체험장 등 자연 속 휴식 장소를 개방해 운영하고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힐링코스로 제격이다.

대한민국 정남진 장흥의 천관산은 매력적인 등반 코스로 인기가 높다. 호남 5대 명산 중 하나로, 오르는 길은 가파르지만 한시간 내외면 등반할 수 있다. 정상에

이르면 남해안 다도해가 동양화처럼 펼쳐지고, 40만평에 달한 억새밭이 나타난다. 억새밭은 매년 가을 '천관산 억새제' 축제가 열릴 정도로 특별한 운치를 자랑한다. 장흥군 장흥읍 억불산 자락에는 40년생 이상 된 편백나무 군락이 우거진 숲이 펼쳐져 있다. 장흥 여행 중 빼놓을 수 없는 명소인 '정남진편백숲 우드랜드'이다.

이곳도 피톤치드와 음이온을 가장 많이 내뿜는다는 편백나무와 산야초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어 최고의 '숲캉스'를 즐길 만하다. 소금찜질방, 생태건강체험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기에 충분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농번기 농촌인력 수급 빨라진 대처

'코로나19'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제한 등 농번기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던 전남도내 농어촌이 전남도의 농업인력 지원으로 농번기를 넘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농업인력지원상황실 모니터링 결과 지난 3월 23일부터 5월 10일까지 5만4468명의 영농인력이 농번기를 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인력 수급에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 5월 중순부터 마늘, 양파 수확 등 작업으로 인력수요는 늘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늘어난 유류인력이 꾸준히 지역 인력시장으로 유입돼 인력수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전남도는 농가에 제때 인력을 공급코자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을 대폭 강화하고 지난해보다 조기에 사·군별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농촌인력 수급에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했다.

5월 중순부터 마늘, 양파 수확 등 작업으로 인력수요는 늘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늘어난 유류인력이 꾸준히 지역 인력시장으로 유입돼 인력수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올 2분기 '국민신청실명제' 운영

전남도는 오는 30일까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2분기 '국민신청실명제' 운영에 나선다.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실명제의 한 방식으로, 도민들이 공개를 신청하면 전남도가 정책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공개하는 제도다. 기존 정책실명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대상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수 도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정책 ▲2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1000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다수 도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 있는 정책 등이다. 신청은 전라남도 누리집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전남도청 담당자 이메일(meeinglang79@korea.kr) 또는 우편(전라남도 무안군 삼함읍 오룡길 1, 정책기획관실 정책개발1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화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